

창세기(10)

창세기 2 장 4 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돌렸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앗시리아의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창세기 2 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금도 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에 붙들린바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형상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속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천지창조 이후에 재창조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초목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 이렇게 창조하실 때만 해도 그때 기후는 노아 홍수 때 기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깊음의 창들이 열리고 그것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40 주야로 물이 쏟아져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깊음, 즉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늘에 있는 물이 띠를 둘러서 온실처럼 아주 살기가 좋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는 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가 끼면 그 물들이 지구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어요. 즉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식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요한복음 15 장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이 농부를 보통 farmer 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농부를 'husband man'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만드시 농부이다. 사람들이 계속 농부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았으면 전혀 걱정이 없을 텐데, 지금은 채소와 모든 식물을 더 많이 취하려고 욕심 내서 그냥 공해를 일으키고 해서 세상 경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농부들은 살 길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세상이 완전히 혼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농자지천하지대본야(農者之天下之大本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시에서 부대끼며 일하는 사람들이 푸념하면서 나이가 들면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짓고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그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을 파 먹으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표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 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1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그 결과 몸은 흙으로 빚으셨고 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체는 혼인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람은 혼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된 이 몸은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었다. 진화론자들은 뭐 아메바에서부터 나왔다고 헛소리 하고 있지만 인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건장한 청년 농부로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건장한 남자로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한 30 대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생물학적 인류학적 고고학적, 이렇게 -학적이라고 하면서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고, 아이들 책에다가는 뭐 옛날 중생대 신생대 등등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림을 그려 넣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젖어 살았습니다. 공룡시대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거 전부 속은 겁니다. 성경을 그만큼 봤으면 절대 안 속을 텐데 성경은 안 보고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살았으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물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시로 나가지 마십시오. 속화됩니다.”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 말이죠. 정신을 웬만큼 차리기 전에는 이 도시에 동화가 되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전부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이고 쫓겨난 다음에 놋 땅으로 갔는데, 동편 땅 바로 기기에다 도성을 쌓고 자기 아들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에다 보화를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남겨주고 ‘아, 내가 뭔가 이루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동물과 똑같이 자기만족 또 자기보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번식 이견 뭐 개나 고양이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인류 인구 70 억이 살고 있지만 90% 이상이 사실은 개나 고양이와 똑같이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옷을 입고 다녀도 밤이 되면 개나 고양이와 다를 게 없다고 그래요. 90% 이상이. 아마 심지어 침례교회 중에서도 침례교인 가운데 10%만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고 그러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숫자를 자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진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도지 그저 교인으로 등록하고 헌금 내면 전부 교인이라고 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속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행하는 형상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예전에 너무나 많은 걸 봤습니다. 장로님들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점잖습니다. 밤만 되면 동물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결국 3장에 가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나는 내가 깎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왕은 옛날부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 있던 몸이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으로 인해 결국 이 죄가 없어지고 도말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다윗처럼 ‘내가 깎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내 안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 껍데기 몸을 벗어버리면 주님의 몸으로 입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잖습니까. ‘너희는 자기 일만 한다.’ 자기 것 밖에 모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 보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5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상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키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지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하고 하였노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여기에도 보면 심고 거두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있으면 한 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심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만드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씨를 뿌려보면 쪽정이라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혼을 창조하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범씨에 눈이 있는 것처럼 죽을 때 심겨서 눈 때문에 결국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하나의 씨처럼 땅에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이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82 세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할 때 구덩이에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어머니가 심기는구나. 어머니 이제 싹이 나시면 저를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나서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때 만납시다.” 이렇게 제가 어머니의 시신에 대고 진짜 얘기했어요. 소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 일단 심어가지고 썩게 해서 그 안에 생명을 나게 하시는 농부로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도 농부요, 노아도 농부로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주님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지금은 몰라도 씨를 받아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57 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왜 그렇습니까? 56 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55 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마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외치는 말일 겁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 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바로 우리의 부활이죠. 일어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무덤아, 네가 나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외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58 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라.” 주의 일이 뭐니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아무리 뿌려도 다 없어지고 육신을 위한 자기보존을 하고 자기생식을 하고 자기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전부 썩어져 육신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의 일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졸도를 하더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몸을 사린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없지요. 썩을 것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다가 사람들이 쓰러지는 판인데요.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은퇴해서 편히 살려고 죽어라 일하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몇 년도 안 되어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뿌리는 우리들은 영원한 보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뿌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며 농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다시 뿌려줌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혼들이 살아있는 영들이 되어 죽지 않는 영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무궁토록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했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슨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만나면 그때 우리가 다 알게 될 줄 압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락된

계시만 알지만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가족으로서 섬길 날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